

○ 녹 음 일 시 : 2024년 02월 19일

○ 녹 음 장 소 : 전화통화

○ 대 화 자 : 박준한 / 최병선

대 화 내 용 (4)

파일명 : 2024. 2. 19. 통화녹음

박준한 : 예, 여보세요?

최병선 : 응.

박준한 : 예, 형님.

최병선 : 왜 그렇게 조용해.

박준한 : 예?

최병선 : 왜 그렇게 조용해.

박준한 : 그냥 뭐 특별히 그냥 하는 게 없어서 기다리고 있어요, 모든 걸.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.

증제 5호증 4



최병선 : 뭐 때를 기다리는 거야?

박준한 : 아니, 지금 화장품 좀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물건을 줬다 말았다 줬다 말았다 하니까 맨날 그것만 매달려서, 한 한 달 동안 그러고 있어요.

최병선 : 넌 필러, 보톡스는 안 하지?

박준한 : 아니, 하기는 해요. 근데 지금 저희가 좀 줄었어요. 예. 그래서 그거는 본사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수출하려고 지금 작년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크게 하지는 못하고.

최병선 : 넌 저기 구인모라고 아냐? 엠엔컴퍼니, 구인모?

박준한 : 아니요. 처음 들어봐요.

최병선 : 애 개인으로 작년에, 개인 사업자더라고. 작년에 한 160억 했던데?

박준한 : 160억이요? 어우, 많이 했네요.

최병선 : 그래서 애는, 이야-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. 애가 누구 소개를 받아서 내가 만났어. 나는 애를 뭘 하는지 몰랐고. 서로 이렇게 만나서 술자리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걸 한다는 거야, 자기 브랜드로. 그래서 “그러면 OEM을 어디서 하냐?” 그랬더니 뭐 있대. 그거 어디 있냐면 우리 갔던 데 어디지?



박준한 : 아- 저기, 아-

최병선 : 한진식이?

박준한 : 예, 예.

최병선 : 그 회사에서 하고 있더라. 9.6불에 찍는다는데? 내가 모른 척하고 쪽 애기 들었거든. 2만? 한 달에 한 2만개?

박준한 : 2만 개 정도요? 9.6불,

최병선 : 그래서 내가, 어, 자기네 브랜드로.

박준한 : 아마 그러면 그거 저거 있을 거예요. 앞뒤로 뭐 있어요.

최병선 : 우리가 얘기한 개네는 다 모르는 거고, 대표의 와이프랑 자기랑 한대.

박준한 : 절대 그 구조로 나올 수가 없어요. 이거는 왜냐하면 9.6불이라고 하더라도 앞단에서 그걸 누군가 사줘야 되거든요. 게다가 회사 브랜드도 아니고 자기 브랜드이기 때문에, 이거는 말로는 내 브랜드인데 실제 앞단에 누군가랑 조인이 돼서 그거를 받아주는 애가 있을 거고. 그러면 단가가 생각보다 많이는 못 버는 구조예요.

최병선 : 어. 많이는 못, 마진이 적긴 적대.

박준한 : 엄청 적어요. 그러니까 근데 저게 있는 거는 중요하죠. 이제 바이어를 끼고 있는, 앞단에.



최병선 : 근데 이제 자기네는 이제 중국, 멕시코, 베트남 세 군데는 무슨 허가를 받았대. 중국 쪽에, 아, 필리핀, 중국, 멕시코. 그래서 그거는 제조사들도 없는 거고 뭐 그런 건데 받아서 그걸로 이제, 지금 메인은 중국인데 멕시코 이런 데 지금 나갈 거라고 그러는데, 지금 자네가 내보내면 한 70불 이렇게 나간다는데? 매출 증가한 게,

박준한 : 요즘 그런다는 사람들이, 그런다는 사람은 많은데 형님, 진짜 저도 이 바닥 오래 있어봐서 그런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 까보면 진짜 매출이 정말 형편없어요. 그러니까 제 앞단에서도 우리도 그거를 하려고 했었잖아요, 사실은? 근데 마진이 안 맞았잖아.

최병선 : 이노톡스, 이노톡스가 저기 거라며, 거기는 자기가,
(제삼자와의 대화 : 그냥 직진해서 세워주시면 돼요.)
이노톡스는 자기가 그걸 전량 다 자기가 갖고 있다는데?

박준한 : 이노톡스를요?

최병선 : 어.

박준한 : 아니, 이노톡스를 본인이 어떻게 갖고 있어요? 이노톡스를,

최병선 : 메디톡스 거지?

박준한 : 예, 예.

최병선 : 그거 자기네가 독점이라는데? 뭐,



박준한 : 아니, 그렇지 않아요. 이노투스는,

최병선 : 그런 거 아니야?

박준한 : 이노투스는 지금 물건이 안 나와요. 단종 됐어요.

최병선 : 그래, 어, 어.

박준한 : 단종 됐고.

최병선 : 물건을 갖고 있다고 그러던데, 자기가?

박준한 : 다 뿌린 거예요. 사갈 사람 사가라. 그러고서 저희도 그때 몇 천 개 받, 거의 1만 개 가까이 저희도 받고 다 해치웠어요, 그때. 그러니까 애네들은 이제 제일 마지막 물량 지금 갖고 있는 거고. 그거를 이제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노투스가 옛날 같지는 또 않아요. 저 팔고 나서 그다음에는 좀 말이 좀 나와서 막 산다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고 ‘200개 있어요, 300개 있어요, 500개 있어요.’ 이런 정도 약간 그런 분위기고, 자기 브랜드는 우리가 예전에도 만들려고 했잖아요. 그때 어디입니까?

최병선 : 그렇지, 어, 어. 제네투스.

박준한 : 근데 그거 다 빠그라진 거잖아. 다 빠그라진 게 결국에는 서로 마진이 안 맞아서 결국엔 빠그라진 거 아니에요, 솔직히 말해서. 돈은 둘째 치고, 우리도 돈 계산하지만, 해야 되지만 마진이 안 맞았고. 그다음에 회사에서도,



최병선 : 그때가 10불이었잖아, 그때. 10불.

박준한 : 10불인데 9. 몇 불까지 떨어준다고는 했었어요, 거의 비슷하게 MOQ만 맞춰주면. 근데 문제는 그거를 중국에다가 애네들이, 우린 또 중국이니까 “그러면 애네 자체 브랜드로 좀 띄울 거냐?” 그런 계획도 없었고, 제네톡스에서는 그냥 “너네들이 알아서만 받아서 알아서 플레이해라.”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맞춰줄래? 그거는 또 그 당시에는 못 맞춰준다. 왜냐하면 애네들이 이제 법에 대해 쫓아 있어 놓으니까, 처음 하는 애들이어서. 건방만 떨다가 그냥 끝났죠. 그냥 그대로 끝나버린 거예요, 그건. 아무 의미 없이.

최병선 : 제네톡스는 OEM은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?

박준한 : OEM 말고는 할 거 없어요, 개네들. 그게 다예요, 애네들은. 별 의미도 없고. 그럼 지금은 엄한 데에다가 잘못 투자했다가 완전히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다들 만들었던 사람들도 조금 이제 허리띠 졸라매는 분위기. 예, 진짜로.

최병선 : 수출이 안 돼, 더 이상?

박준한 : 수출이 쉽게 안 돼요, 쉽게 말하면. 왜냐하면 중국에서 지금 보톡스 잘못 들고 가면 그거 전량 폐기당해요.

최병선 : 음...



박준한 : 100% 폐기당해요.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보톡스로 가는 게 아니고, 왜냐하면 보톡스는 약물이니깐, 필러 쪽으로, 필러 쪽으로 가는데 이런 분위기가 보니까 제조사에서도 보톡스 필러를 묶어서 파는 거예요. “이거 필러, 니가 원해?” “어, 알았어. 그럼 보톡스도 받아가.” “너 보톡스 원해?”

최병선 : 거꾸로네, 옛날이랑?

박준한 : 예. 근데 또 “보톡스 필요해?” “알았어, 필러도 받아가” 그러니까 다 걸어놓은 거예요, 제조사에서. 그리고 지네들은 직접 자기네들이 판다고 하는데 이 보톡스 필러 바닥이 또 우리 같은 중간 업자들이 없으면 쉽게 좀 뭐라고 하지, 일이 스무스하게 진행은 또 안 되고. 그러니까 애네들이 제조사는 정식 허가받아서 진행하는 거 말고는 없는데 중국도 그런 분위기를 뻔히 아니까. 정식 업체가 ‘정식 허가 받으려다.’ 그러면 품목 하나당 허가비가 10억 정도 들거든요, 중국이. 5개 품목 허가받으려고 그러면 50억 들어요, 형.

최병선 : 아...

박준한 : 그럼 몇 년 있다 또 해야 되고,

최병선 : 그게 공식, 애가 얘기하는 그건가? 허가? 그건 아닌 것 같은데,

박준한 : 예, 예. 근데 그게 진짜 허가인 거고. 애가 말한 허가는 아마 중간에 뭐 하나 끼워서 좀 ‘빠자’로 허가 비슷하게 나갔든지. 아니면 통관이 되게끔 ‘관시’로 어떻게 통관만 시킨 거 보고 허가받았다고 하는 거죠, 형.



OEM이 됐든 정품이 됐든 허가받으려면 기본 10억이예요, 보톡스는. 필러가 7-8억인가 그러고. 그리고 저 뭐죠, 스킨부스터 이런 것도 한 3-4만 원 하고 그래요, FM대로 하려면.

최병선 : 화장품도?

박준한 : 아이, 그럼요. 화장품도 그 가격대고. 그러니까 “제가 진짜 허가받았습니다.” 그러면 “아- 축하드려요.”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뒤돌아서죠. ‘또 구라쟁이 하나 나왔구나. 이제는 또 별 구라를 다 치고 자빠졌네.’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. 오히려 중국은,

최병선 : 너 요즘 안 나와, 강남에?

박준한 : 나올 일이 별로 없어요, 형. 제가,

최병선 : 그럼 어디, 수서에 있는 거야?

박준한 : 예. 집에. 집에 있다가 그냥 화장품만 지금 조금 주력하고 있고. 보톡스, 필러는 오래되면 조금 풀린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이 꽉 막혀 있으니까.

최병선 : 아니, 그러니까 지금, 아이,

박준한 : 중국에, 중국 한 달 동안 형, 쌤 난리 났었어요. 보톡스 우리 앞단에 나보다 크게 하는 두 업체가 다 걸렸어요, 동시에.

최병선 : 그럼 물건만 그냥 빼긴 거야?



박준한 : 아니, 물건 다 뺏기고 한 팀은 ‘빠꾸’ 맞고 한 팀은 아예 뺏기고. 그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가 전면 중단. 뒤로 빼자. 지금 우리 앞단에 김 사장이라고 있거든요, 또 다른 놈 하나. 개랑 이야기해서 “일단은 좀 잠잠 하자.” 그래서 지금 그거 동남아 쪽으로 일부 좀 빼고 있고. 중국에서는 달라고는 하는데 아니 뭐, 해관들이 다 잡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방법이 없어요, 중국도. 중국이 돈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한 일주일 나와서 수금 좀 하고 집에 가거든요?

최병선 : 응.

박준한 : 한 달 있었대요, 한 달.

최병선 : 뭐를?

박준한 : 집에도 안 가고 파견 나와서 형, 한 달, 북경에서 무슨 사행까지 한 달, 북경에서 심천까지 한 달, 대륙을 가로질러서 집에 안 가고. 왜냐하면 자기들도 돈이 없으니까. 이때까지 뒤로 해먹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채워질 때까지 한 달 동안이요. 그래서 우리도 수출을 한 달을 못하고 있었다니까. 나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. 중국 시진핑 개새끼예요. 월급을 안 주는지 진짜 개판이에요, 진짜 중국 지금.

최병선 : 영준이네도 지금 러시아 화장품 수출하던 거,

박준한 : 예. 다 막혔을 거요.



최병선 : 못했어. 아니, 하긴 하는데 결제는 애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았거든, 달러로. 루블화로 준대.

박준한 : 그렇죠. 근데 러시아는 루블로 돌린 지가 한참이어서,

최병선 : 달러가 없대.

박준한 : 저희도 러시아 애들 몇 명이 컨택이 먼저 왔어요. 병원까지 오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“나 병원 나오는 날 맞춰서 와라.” 그랬는데 씹새끼들이 루블 이야기하길래 “고 아웃, 고 아웃” 그랬다니까요, 저도. “고 아웃.” 나가라고. 루블은 지금 지금 어디 잠비아 달러하고 똑같은데, 짐바브웨 달러 수준인데. 지금 루블을 이야기하길래 ‘미쳤나?’ 내가, 부르마블도 아니고.

최병선 : 결제를 그래도 일주일에 그래도 해주던 게, 애네 엄청 큰 회사잖아. 골든애플이. 그 회사가 그러잖아.

박준한 : 예. 근데 지금 해외 하는 데들은 달러 돌리는 데 말고는 어려운데 그나마 달러 돌리는 데들도 다 물량 축소 분위기고, 문들을 지금 다 잠그고 있어서. 하여튼 지금 뭐 하여튼 미국 대선 끝나야지 이것도 뭐 달라진다. 한국도 대선 지나야 달라진다. 다 기다리고 정치권만 쳐다보고.

최병선 : 그럼 저기 소주나 한 잔 하자.

박준한 : 형 그나저나 우리, 우리 거는 4월 말이 기일인데 어떻게 돼요?

최병선 : 윤용은 아직도 저것도 안 받았다니까. 나는 대구는 두 번 가서 이제 끝났



고. 남해정이만 지금 수서에서 당기려고 지금 출석 요구해봤는데 아직 안 왔대.

박준한 : 아이씨, 미치겠네. 일단은 저희도 그게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, 형님. 일단,

최병선 : 그러니까 내가 지금, 나 지금 다른 방법 좀 쓰고 있어, 지금.

박준한 : 저번에 그거는요? 그 누구죠? 최지영? 아니, 뭐 박영선?

최병선 : 아, 린드먼?

박준한 : 예, 예.

최병선 : 그것도 지금 이제 가결산 보고 있는데, 지금 내가 지금 약간 동군이 이름으로 법인 하나 내가 또 내려고, 생큐마트만 떼려고. 내일 이제 내 동생이랑 이마트 여기 만나거든. 대한상인은 좀 무거우니까 일로 좀 빼자 해서 동군이 이름으로 해서 지금 법인 하나 내서, 생큐마트 수수료는 거기로 들어오니까. 그러면 애네 월급만 주고 나머지 지금 룬이 있잖아.

박준한 : 예, 예.

최병선 :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. 아니면 대한상인은 이자 때문에 이씨, 그래서 대한상인이랑 지금 분사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가려고 지금, 변호사 만나고 지금, 내가 그리고 기철이 잘랐다?

박준한 : 아, 이야기 대충은 들었어요, 형님.



최병선 : 아- 모르겠다. 나는 이씨, 아- 진즉에 잘랐어야 되는 것 같은데 씨, 지금
세무사 지금 어린 애 하나 쓰는데 말 잘 듣고 그냥 괜찮은데. 아-

박준한 : 그러면 형 4월 말에는 일단 저희는 어려운가요? 어떻게 돼? 이거 좀.

최병선 : 월 얼마라도 이제 돈이 나오니까, 한 2천씩 남으니까. 결국 옛날에 얘기했
던 그 내용이야. 너랑 얘기했던 “몸집 줄여라.” 뭐 이런 건데. 그거 몸집
줄이는 건 답이 안 나오고 그냥 분사 개념인 거지. 돈 되는 것만 따로 떼
어서 동군이 이름으로 100% 지분 넣어가지고 지금 법인 만들고 있거든. 그
렇게 해서 이제 빼야지.

박준한 : 그러면 4월 이후에는 뭐 한 달에 한 돈 천씩이라도 돌아가지나요? 어떻게
돼요?

최병선 : 뭐 계획상으로는 그렇지 뭐. 돈 천은 남지.

박준한 : 그래요? 그러면 그게 저희 쪽으로는 돌려질 수 있는 거예요?

최병선 : 그렇게 해서 빼서 줘야지, 뭐. 개인적으로 빼서 줘야지. 비용으로 빼든가
해서 빼야지.

박준한 : 알겠습니다. 일단은,

최병선 : 내일이 중요해, 내일이. 아- 이마트가 법무 검토를 진행해야 된다는데 이제
그래서 내 동생이랑 다 데리러 가는 거야. 동군이랑 이 과장이랑 가서 이
런 내용이다. 명분은 여기 김광수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하는 거지. 아직도



대한상인은 김광수 지분이 남아 있으니까.

박준한 : 알겠습니다. 그러면, 아-

최병선 : 그래. 소주나 한잔 해, 언제.

박준한 : 알겠습니다.

최병선 : 이번 주에 하든가.

박준한 : 예.

최병선 : 응, 응.

끝.

열람용

